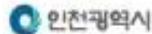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3월 30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협치인권 담당관실	담 당 자	• 협치기획팀장 • 담당자	한 은 희 ☎440-3391 김 혜 란 ☎440-339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관협치의 마중물 -

“인천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첫 발 내디더

-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융합을 통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인천시가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출범으로 본격적인 협력적 협치 체제로의 첫 발을 내딛는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월 30일 공공적 경험과 실행력을 가진 14개 기관이 ‘인천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참여 기관은 인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인천광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등 총 14개 기관이다.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출범은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 21조에서 제시한 ‘민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조항을 근거로 작년 9월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및 워킹그룹 회의, 그리고 두 번의 토론회 개최 등 참여 단체장들의 수고와 협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크게 성장하면서 더 이상 공공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공동 생산자로서 협치의 한 주체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전문성 확보, 재정자립도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자체별로 앞 다퉈 협치 시정 기초를 채택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영역과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단체, 사회적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상호연계, 정보교류, 활동자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간지원조직 주체 간 연계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적 경험과 실행력을 가진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행정과 풀뿌리 민간 주체 간의 교류와 연계를 활성화하고,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융합을 촉진하여 민관협치 시대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견고히 했다는 점에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출범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참여기관 대표들은 “오늘 출범 선언을 통해서 행정과 풀뿌리 시민사회 간 교류와 연계 활성화를 통해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중간지원조직 간

상호 연대 및 연계 융합 등 협치 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토대를 견고히 할 것” 을 다짐했다.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의 위상 정립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협치 파트너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시민과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원, 공동 협치 의제사업 선정과 실행 등 바람직한 네트워크 운영방향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히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가 조직들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운영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사회적 가치 지향의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를 기대하며 응원한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15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